

SK, 석유 · 가스 · 건설 패키지 협력

러시아와 진행사업 효율성 극대화 기대 ... 상호 전략적 투자 제안

SK그룹이 계열사별로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원 SK그룹 글로벌위원회 위원장은 9월29일 러시아 세계무역센터(WTC)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석유, 가스, 건설 등 개별 프로젝트 단위 협력을 패키지형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1990년대부터 러시아 자동차 윤활유 시장에 진출해 수입 윤활유 시장 3위를 달리고 있고 서캄차카 해상 광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SK가스는 러시아 티길(Tigil), 이차(Icha) 육상 석유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SK건설은 러시아 극동 콤소몰스크에서 정제 설비 건설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러시아 경제인 연합회 등이 마련한 것으로 에너지와 투자, 물류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이희범 무역협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경제인 80여명과 프리마코프 러시아 연방상의 회장 등 러시아 측 주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원 위원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상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30>